



오늘은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나요?

우리는 어른들과는 달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몸을 움직이고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것을 온몸으로 탐구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새로운 경험이 펼쳐질 거예요.

배우는 일은 짜릿하고 즐거워요.

배움의 가치와 재미를 아이 스스로 찾아가는 곳, 틸아임일레븐.

CONTACT

Visit blog.naver.com/tilliam11
031-717-2177 @Jeongja Campus
031-711-2177 @Pangyo Campus



TILL I'M ELEVEN
Montessori Early Education Center

TILL I'M ELEVEN

Play, Experience and Learning

2012년 12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즐거운 교육에 대한 고민 끝에 탄생한 틸아임일레븐 영어유치원은 지난 10년간 분당 지역에서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유아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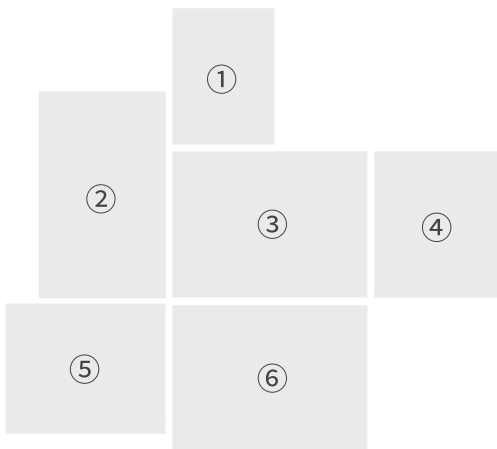
틸아임일레븐의 아동중심의 교육 철학을 사랑한 학부모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2022년 틸아임일레븐 판교캠퍼스가 추가로 오픈하였습니다. 경쟁과 성과에 목매는 사교육 시장 속에서 신념을 지키고 올바른 교육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낳은 성과였습니다. 북미 몬테소리 협회의 교육과정과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을 접목시킨 영어 전인교육 프로그램, 전문적인 교사 채용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수준높은 교사관리,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철학,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몬테소리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내 유일한 교육기관. 이런 틸아임일레븐을 선택한, 그리고 자녀의 졸업을 앞둔 학부모님들께 물어보았습니다.





텔아임일레븐의 교실은 전 교실이 큰 창문이 있는 구조로 우리 아이들이 창밖으로 보여지는 사계절의 변화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도벽 또한 유리 통창으로 되어있어 우리 아이들의 생활이 언제나 노출되어 안전합니다.





①Garden 봄, 여름, 가을에 맞는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 ②Montessori 다양한 영역의 개념을 구체물을 통해 탐색하여 살아있는 지식으로 체득하는 시간 ③ Language Arts 몬테소리 교구를 활용하여 파닉스 음가 규칙을 배우고 Reading의 기초를 쌓는 시간 ④Event Day 봄의 주제에 맞게 예쁜 꽃을 만져보고 직접 꽃꽂이 해본 특별 수업 ⑤Theme 매 달 정해진 주제에 따라 여러 교과가 통합된 영되는 프로젝트 수업 ⑥Library 자신의 레벨에 맞는 책을 고르고 대여해가는 도서관 체험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는 시간

I love Till I'm Eleven!

Mikey 어머니
7세 Brown Bear
판교캠퍼스

안녕하세요! 저는 틸아임일레븐 판교원에 재원중인 Mikey 의 엄마입니다.

워킹맘인 저에게, 보육 위주의 직장 어린이집을 다니던 강준이가 영어 유치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전원을 한다면, 충분한 보육과 함께 자연스러운 놀이와 학습의 형태로써 영어를 습득할 수 있어야 하고 누리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던 저희 부부에게 틸아임일레븐 판교원의 개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정자원을 통해, 틸아임일레븐이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는지 알고 있었던 덕분에 위치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의 니즈에 맞는 판교원의 개원 소식은 더할 나위없이 반가웠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바로 설명회를 찾아 대표님과 원장 선생님의 구체적인 학습 방향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다른 영어유치원과 달리 몬테소리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누리 과정을 대체할 만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실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강준이에게 21년 3월부터, 현재 7세까지의 일상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틸아임일레븐에서의 생활은 등원한 시간부터, 하원하는 순간까지 늘 아이들을 위한 시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어 교육 측면의 아웃풋을 위해 reading, writing, vocabulary, grammar 등의 수업을 받습니다. 강준이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몬테소리 수업과 테마 수업, 그리고 플레이타임 수업에서는 타 영어 유치원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일반 유치원의 누리 과정을 대체할 만한, 수학, 미술, 지리,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즐겁게 놀이하며 공부합니다.

맛벌이 부부인 저희에게, 방과 후 수업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학습적인 수업 (한글, 영어, 수학 등) 뿐만 아니라, 놀이로써의 수업 (체육, 바이올린, 뮤지컬잉글리쉬 등) 까지 주 5일을 매일 다양한 수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체계적인 방과 후 수업 덕분에 강준이가 매일 매일 늦은 시간에 하원해도 지루해하지 않았고, 저희 역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덜고 아이를 맡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준이는 작년에 처음 영어유치원을 다니게 되었고, 올해는 햇수로 2년차이지만 감사하게도 3년차 친구들과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절충식 영어유치원의 아웃풋이 학습식 영어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라는 평과 달리, 강준이는 틸아임일레븐에서 매일 즐겁게 놀며 배우는 방식으로 1년의 성과를 뛰어 넘었습니다. 책을 너무나 사랑하고, 유치원 수업을 공부가 아닌 놀이로 받아들이는 강준이가 스스로 잘 해내준 덕도 있겠지만, 원에서 잘 이끌어주신 선생님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우리 선생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놀아서(!!!)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는 걸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밝고 쾌활한 원입니다. 자연스럽지만 단단하게 영어를 다져줄 수 있는 유치원이라 생각하고, 강준이를 그런 유치원에 보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글이 많은 예비 학부모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를 즐겁고 창의적으로 배우는 곳

Elena 어머니
7세 Gold Fish
정자캠퍼스

안녕하세요^^ 틸아임일레븐 정자원에 재원중인 Elena 엄마입니다. 엘레나는 3,4세 가정어린이집과 5세 일반유치원을 즐겁게 잘 다녔고, 6세에 영어유치원으로 이동한 케이스입니다.

영어유치원을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나이에 맞는 따뜻한 분위기와 창의적인 교습 환경이었습니다. 이후 몇 군데 영어유치원에 투어와 상담을 진행했고 저는 틸아임일레븐에만 입학을 지원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유치원스러운 알록달록한 교육 환경과 몬테소리 교육을 영어로 진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에서의 영어뿐만 아니라 수에 대한 감각과 문화, 과학적인 부분까지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매주 GYM수업과 크래프트 수업, 필드트립 등 아이가 즐겁게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에 신경써 주신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엘레나는 이미 5세에 일반유치원 생활을 접했기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적응하여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틸아임일레븐은 일반 학습식 영어유치원과 달리 몬테소리 교육을 영어로 진행하는 특징이 있는 원이다보니,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간 동일한 교육을 진행했을때 아웃풋이 극대화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레나 역시 6세 때는 영어를 부담스럽지 않게 접하면서 영어에 재미를 느끼며 기본을 다지는 시간이었고, 7세인 지금은 그동안 다져온 기본을 통해서 아웃풋을 생성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중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엘레나의 영어실력은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빌려오는 책을 줄줄 마침표없이 읽어내더니 이제는 등장인물의 감정과 느낌을 이해한다는 듯이 곧잘 맛깔나게 읽어냅니다. 엄마의 영어 발음을 지적할 줄도 알게 되었고 모르는 영어단어가 있으면 본인이 알려주겠다며 엄마 앞에서 자신감 있게 허세를 떨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집에서도 혼자 놀때나 엄마와 대화를 할때 자연스럽게 영어로 이야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럴때마다 엄마나 아빠가 유창하지 못하다 보니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주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틸아임일레븐 대표님께서 영어는 꾸준히 하는 아이가 좋은 성적을 유지한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저는 지금 단기간에 대단한 AR레벨을 달성하는 것 보다는 아이가 영어에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가져 오래오래 영어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틸아임일레븐이 아이에게 그러한 원이 될 것이라고 믿고 보내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제 판단이 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모두의 교육관이 같을 수 없기에 누군가에게는 틸아임일레븐에서 매주 빌려주는 도서의 갯수가 또는 매주 주어지는 숙제의 양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겠지만, 영어를 즐겁고 창의적으로 접하기를 바라시는 학부모님들께는 이 곳을 추천합니다.

영어유치원 선택에 고민이 많으실텐데, 저의 주관적인 글이 학부모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



①English Science ②한글수업 ③바이올린 ④English Musical
 ⑤Cooking ⑥Ballet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열려 정규수업
 이외의 재미있는 수업들을 원에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가득한 유치원 생활

Yunu 어머니
7세 Brown Bear
판교캠퍼스

저는 아이의 유치원을 선택할 때 너무 멀지 않고 아이에게 편안한 환경이길 바랐습니다. 몬테소리는 아이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관련 책들도 읽어 보곤 했었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무렵 틸아임일레븐이라는 몬테소리 영어유치원이 있는 것을 알고 반가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 근처에 틸아임일레븐 판교원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해 보았는데, 1층 입구에 들어서면 보이는 도서관과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카페트가 있는 교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통유리창을 통해 교실 안으로 햇빛도 잘 들어오고 주변의 나무들도 보이는 편안한 환경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문자에 관심이 많은 아이여서 영어를 좋아했고, 몬테소리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까지 만족스러웠던 틸아임일레븐 유치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년 반 정도 아이의 유치원 생활을 돌아보면 아이는 편안한 환경에서 규칙을 배우고 차츰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스스로 하는 모닝워크 시간과 서클 타임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아이가 유치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학습만을 위한 시간표가 아니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틸아임일레븐 원은 아이들에게 편안한 환경과 몬테소리 수업을 배울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생각됩니다. 몬테소리 수업을 통해 네 자릿수 덧셈, 뺄셈까지 배웠고, 현재 곱셈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론 수업과 함께 교구를 통해 개념을 익힐 수 있어서 아이가 습득하는 속도가 빨랐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다양한 세계 문화를 교구와 여러 자료 및 활동을 통해 배우면서 지적 호기심이 충족될 수 있었고 아이도 즐거워했습니다. 교재로만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책도 만들고 가위질하고 붙이고 색칠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용을 익히니까 즐겁게 배우면서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실력도 많이 성장했는데, 랭귀지 아트 시간에 배우는 파닉스 수업 또한 교재와 함께 교구를 사용하니 아이가 더 잘 받아들이며 배울 수 있던 것 같습니다. 파닉스를 잘 배우니까 처음 보는 단어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발음도 정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주 6권씩 빌려오는 도서가 읽기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R 퀴즈를 풀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특히 20점마다 수여되는 배지를 받을 때는 아이가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Theme 시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해서 아이가 늘 그 수업 시간을 기대하며 등원했는데, 친구들과 다같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특히 재미있어 했고 이를 통해 협동 능력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유치원에 갔을 때 잔디가 깔린 루프탑 공간을 아이가 정말 좋아했는데, 여전히 루프탑 짐 수업 시간을 기대하고 즐거워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루프탑 짐 활동을 못할 때도 있지만 1층에도 아이들이 충분히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매일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달 진행되는 필드 트립이나 페스티벌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아이가 유치원 생활을 기대하며 즐겁게 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급식도 조리실에서 정성스럽게 직접 만들어주시고 다양한 메뉴 및 인터네셔널 푸드 데이 등 아이들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게 원에서 신경써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남은 5개월도 아이가 따뜻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 9월 한국민속촌

그 달의 Theme과 연계된 체험활동을 실시합니다.

▶ 4월 동천자연식물원 천연염색체험



따뜻한 환경에서 바르게 크는 아이

Seowoo 어머니
7세 Yellow Duck
판교캠퍼스

안녕하세요? 7세 Yellowduck Class에 다니고 있는 예비졸업생 Seowoo엄마입니다.

처음 담임선생님께 졸업생 후기를 부탁받고 약간의 부담스러움에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거의 2년간 직접 등하원을 시키며 보고 느꼈던 유치원에 대한 솔직한 후기가 후배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용기 내어 써봅니다.

다른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저는 교육기관을 고를 때 수많은 요소들을 따져가며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하는 편입니다. 우리 아이가 2년동안 다닐 유치원을 고르는 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유년시절의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정자동에서 10여년 잘 운영되어 온 틸아임일레브의 소문을 먼저 아이를 키워본 친구들로부터 들었지만 거리가 조금 멀게 느껴져서 망설이던 중에 판교원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설명회를 들은 날 망설임 없이 입학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학습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닌 영어라는 언어로 유치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는 생각과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편안한 환경, 틸아임일레브만의 교육, 경영철학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입학한 후에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시고 수많은 아이들과 생활해보신 담임선생님과 소통하며 믿고 맡겼더니 어느새 아이는 몸도 마음도 영어실력도 성장해 있었고 7세인 지금도 역시 유아교육 전문가이신 따뜻한 담임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며 초등학교 대신 유치원을 더 오랫동안 다니고 싶다고 말합니다.

담임선생님들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 유치원에 오가며 크게 느끼는 것은 틸아임의 모든 스태프들이 틸아임의 따뜻함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온화하고 한결같은 원장선생님과 데스크 선생님들, 밝고 따뜻하신 보조선생님들 심지어 셔틀팀장님, 청소선생님, 급식실 선생님 마저 그들의 성실함과 밝은 마음이 원을 오고 가는 엄마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무척 놀랍습니다. 대표님과 원장님의 경영 철학이 확고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늘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걱정없이 아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는 최근 국제학교로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입학시험과정에서 미국학교 아이들을 평가하는 맵테스트를 통해 영어는 물론이고 수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이며 합격소식을 들었습니다. 선행학습을 서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 몬테소리 시간을 통해 큰 수의 개념을 익히고 연산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간 것이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몬테소리 방식으로 영어나 수학을 익히는 것이 학습 효율성에서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 사실 큰 기대보다는 그저 편안하고 재미있게 익혀나가는 것에 마음을 두었는데 학습적으로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어서 유치원 덕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학교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틸아임일레브의 커리큘럼이 얼마나 수준 높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새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제학교 특성상 9월에 입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틸아임의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졸업식까지 꼭 생활하고 싶다는 아이의 부탁으로 학교입학은 3월로 미룬 채 틸아임에서 남은 시간들을 하루하루 행복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치원 급식이 더 맛있다고 유치원에서 먹었던 메뉴를 해줄 수 있냐고 물을 때가 많은데 엄마로서 가끔은 조금 서운하기도 하지만 늘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높은 퀄리티의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 덕분에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에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예비 졸업생으로서 후기를 적고 있다 보니 몇달 후면 헤어진다는 생각에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지만 이렇게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후배어머니들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큰 철학을 가지시고 그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는 행운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좋은 유년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유치원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몬테소리의 힘



Elina 어머니
7세 Blue Horse
판교캠퍼스

1. 몬테소리 프로그램

평소 몬테소리 교육에 관심이 많아 틸아임일레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재를 통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교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념을 확립, 이를 추상적인 부분까지 확장해내고, 자기주도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부분이 유아기 교육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몬테소리를 통해 배운 언어와 수 개념은 추후 심화 학습을 하거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교육 환경

환경은 분당/판교내에서 최고로 우수합니다.

채광이 잘 드는 넓고 쾌적한 교실에서 교과별 특화된 세 분의 선생님과 공부를 하고, 옥상의 텃밭과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요!

3. 퀄리티 높은 식단

전국 유수의 교육기관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퀄리티 높은 식단! 배달 급식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한달의 한번 International day 에는 직접 반죽한 도우로 만든 피자, 태국 음식인 팟타이 등이 나오기도 하고, Field trip을 갈 때면 직접 싹 김밥이 제공되니 엄마로서 항상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1년 재원해보니, 판교에 틸아임일레븐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교육의 꽃인 몬테소리를 영어를 통해 배우니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을까요.

유아기 때 배워야 할 교육과 영어,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 | | | |
|---|---|-----------------------|
| ① | ② | ①Water Play Day |
| ③ | ④ | ②다도체험 ③Sand Art |
| | ⑤ | ④안전교육 |
| | | ⑤Children's Day Event |
- 월별로 그 달의 주제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 10월 Book Festival

한달동안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고른 동화작가에 대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마지막 날 자신이 좋아하는 북캐릭터로 분장하여 축제를 즐기는 행사입니다. 틸아임일레븐에서는 할로윈행사 대신 북페스티벌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I want to study at TILL I'M ELEVEN until I'm eleven!

Jamie 어머니
7세 Brown Bear
정자캠퍼스

안녕하세요? 틸아임일레븐 정자점에 재원중인 Jamie 엄마입니다.

제가 쓰는 글이 유치원 선택을 고민 중이신 여러 학부모님께 도움이 될까 우려되는 마음도 있지만 2년간의 유치원 생활의 후반부를 보내며 졸업을 앞둔 Jamie가 틸아임일레븐에서 너무 행복했고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 유치원 선택에 고민했던 한 아이의 엄마로서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제가 틸아임일레븐 정자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이유는 우연한 기회에 원의 Weekly Lesson Plan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어유치원과 달리 Montessori/Language/Theme 수업으로 구성된 매일매일의 프로그램을 보며 내가 원했던 영어유치원은 이런 모습인데 하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몬테소리 영어 유치원은 무엇이 다를까 하는 궁금증에 설명회에도 참석했고, 설명회를 통해 들었던 느낌은 영어를 배워야 하고 외워야 하는 공부 과목이 아니라, 국어가 아닌 또 다른 언어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늘이 보이는 커다란 창을 통해 햇살이 들어오던 교실이 참 따뜻해 보였고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틸아임일레븐에서는 하루 종일 좁은 교실에서 앉아 대부분의 학습을 책과 인쇄물을 통해 접하는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보고 함께 이야기해보고 천천히 깊이 있게 배우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Jamie는 Theme 수업을 가장 좋아하는데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뤄지는 Theme 수업의 주제들은 지리/사회/과학 등으로 누리과정과도 연관되어 있어 다양한 배경지식을 쌓아 학교에 가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영어유치원을 다니면 자칫 영어에만 비중이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Montessori 수업을 통해 수학의 덧셈/뺄셈/곱셈/나눗셈 등의 원리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교구를 통해 배울 수 있어 연산이나 도형 등의 문제를 접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유치원은 방과후 프로그램이 없거나 있어도 선택의 폭이 좁은 반면 틸아임일레븐은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 워킹맘인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년간 유치원을 보내며 깨달은 부분은 더 빨리 혹은 더 많이 학습해야 한다고 (엄마나 아이를) 다그치기보다는 믿고 기다려주는 원의 교육방침이 나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어려운 교재와 빠른 진도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읽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구나 라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다시 6세 3월로 돌아간다고 해도 Jamie에게 행복한 유치원 시절과 탄탄한 영어의 기본기를 만들어 준 틸아임일레븐을 선택할 것 같다는 말로 글을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ILL I'M ELEVEN

Montessori Early Education Center